

2012 엑스포 여수로



“정부 ‘로비 외교’, 대기업 측면 지원 필수”

김대성 前중앙유치위 사무총장이 말하는 여수 박람회 유치 전략

“세상이 끌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노랗고요” 지난 2002년 12월 3일, 모나코에서 열린 세계박람회기구(BIE) 제132차 총회장, 2010세계박람회 유치국을 선정하기 위한 88개 BIE회원국의 4차 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민국 여수 34표, 중국 상해 54표”. 노게스(NOGHE) BIE의장의 발표가 끌나는 순간 여수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회 사무총장 김대성씨(당시 59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함께 있던 중앙유치위원회 직원들도, 외무부 직원들도 갑자기 보기가 싫어졌다. “조금만 더 뛰었으면 이겼을 텐데”. 총회장을 몰래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곳을 찾은 김총장은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패배한 책임을 지고 은퇴한 김 씨는 우울증에 걸렸다. 눈만 감으면 그날 모나코 총회장이 생각나서 겸될 수가 없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하루하루 겹기기 어려웠다. 그는 결국 지난 2004년, 정든 삶터였던 서울을 떠나 아내 윤춘희씨와 함께 여수에 정착했다.

모나코 총회장의 아픈 기억이 잊혀질 때쯤 ‘여수시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새로 시작할 것을 결정했고, 또 정부가 국가계획으로 확정했다’는 얘기가 김전 총장에게 들려왔다. 무언가 여수에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실패한’ 중앙유치위 사무총장이 또다시 나선다는 게 부담이 돼 망설여졌다. 아내도 ‘체통 없어 보인다’며 반대했다.

그는 그러나 ‘인생을 건’ 승부처였던 여수의 부름을

끌내 거부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12월3일 구성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준비위원회’에 상임집행 위원으로 합류했다.

김 전 총장은 이번 2012세계박람회 경쟁 후보도시인 모로코와 폴란드에 대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경쟁자’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지난 1998년 모로코 대사관 공사를 지내는 등 모로코에서만 5년여를 근무

박람회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빙약했다는 얘기다. 그는 그러나 “폴란드는 유럽국가로서,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움직이고 있는데 동유럽권에서 우호적인 국가가 많은 만큼 대비는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김 전 총장은 여수의 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서슴없이 답했다. “우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 싸워 밀리지 않은 경험이 있는 나라”라며 “사실 폴란드나 모로코와 싸운다면 객관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중국 측의 하든카드인 셈이지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렇게까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약속하기 했겠지요. 하지만, 규모가 작았고 또 중국 정부가 그렇게 ‘울인’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총장은 “결국 그런 모든 것이 ‘박람회를 유치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로비에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또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및 지원과 함께, 여수가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직접 나서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 정부를 상대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은 투자유치, 경제협력 등을 통해 훨씬 손쉽게 그리고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김 전 총장은 특히 기업들의 역할과 관련, “현대차는 강점이 있는 유럽권 국가를 맡고, 삼성과 엘지는 중동권 국가를 담당하는 형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이 여수세계박람회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은 정부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지난 2002년 당시, 유치전 막바지에 대통령 선거가 겹치면서 박람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식어버린 것도 패배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한 그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와 겹치게 되는 이번 박람회 유치전에서는 과거의 실수가 되풀이 되어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사진=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약력 ▲광주서중, 광주일고 6회, 서울대 불문과 ▲주모로코 대사관 공사 ▲주 세네갈 대사 ▲외교부 본부대사 ▲2010 여수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 사무총장 ▲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준비위원장, 동신대 교수.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사단이 출국날인 지난 14일 삼성미술관 리움을 방문해 고려 청자를 감상하고 있다./연합뉴스

가는 길도 뜨거운 유치 열기

여수 박람회 실사단 출국…여수·서울시민 1천여명 환송

여수가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한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 7명이 5박6일의 실사일정을 마치고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까르맹 실방 단장은 이날 숙소인 서울 하얏트호텔을 출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미국 시카고행 비행기를 타고 떠났으며 나머지 실사단은 호텔 인근 리움 박물관을 둘러본 뒤 각자 국으로 향했다. 실사단이 떠나는 출국장 앞에는 전남도민과 서울시민 1천여 명이 모여 박람회 상징 깃발과 플래카드 등을 흔들며 환송했다. 실사단은 청와대로부터 받은 개개인 익제그릇 등 선물을 한이름 안고 떠났다.

지난 9일 입국한 실사단은 6일간의 일정동안 여수엑스포의 주제와 국제적·지역적 개성이 우수, 정부의 지원과 정

치·경제·사회적 안정성, 운영·재정책임과 참가지원, 홍보 계획, 관람객 수, 숙박대책, 개최지 부지와 교통여건, 박람회장 조성 및 사후 활용계획 등 14개 항목을 점검했다. 특히 11~12일에는 여수 현지에서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여수 신항 일대와 숙박시설, 국도 등의 공사현장을 둘러봤다.

실사단은 현지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BIE집행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141차 총회에 보고한다.

한편, 유치 경쟁국인 모로코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그리고 폴란드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각 현지사를 밟게 된다. 개최지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총회에서 98개 회원국들의 비밀투표로 이뤄진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교통·숙박시설 확충에 중점

전남도·여수시 실사 후속대책 마련 나서

전남도와 여수시는 교통 및 숙박시설을 대체적으로 확충하는 등 이번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에서 미흡했던 분야를 보완하고, 정부 지원 요청과 함께 민간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하는 등 2012 세계박람회 유치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다각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실사단에게 교통과 숙박분야가 비교적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감안,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제 규모의 호텔 등을 건립하는데 주력하고, 특히 여수 인근의 순천과 광양, 고흥, 남해 등에 있는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박람회가 유치될 경우 준비기간

이 4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 SOC를 조기에 확충하고 민간의 투자유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특례를 만드는 등의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실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린 된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방문, 여수지역 SOC확충을 위한 국고지원을 건의하고 특히 외교적 노력을 통해 ‘여수 박람회 유치의 당위성’을 세계 각국에 설득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실사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며 “여수시민의 박람회 유치의지를 앞으로도 이어가는 한편, 전남도 및 정부와 협력해 더욱 다양한 유치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Do it now!

100%

100%

100%

메가급

단독주택까지 100%! 내 집까지 광속 100메가급!

100만 고객이 선택한 하나포스 광랜을

광주에서도 함께 하세요.

하나포스 백·백·백! 페스티벌

■ 행사대상 : 1600-8000 또는 www.hanaro.com으로 가입한 하나포스 신규고객

■ 행사기간 : 2007년 4월 1일 ~ 2007년 5월 31일

■ 행사내용 : 행사1 - 기간내 하나포스 신규 가입고객들 중 주첨을 통해 100분에 낸텐도 DS 라이트 증정
당첨자 발표 : 6월 12일 www.hanaro.com (경품당첨 시 세제공급 당첨자 부당)

행사2 - 2년 약정 이상 모든 신규 가입고객께 사은품 증정 (택1)

하나세트 신규 가입고객 「하나포스+하나폰+하나TV」 동시 가입고객 (하나포스 3년 약정 기준, 택1)	하나포스 신규 가입고객 하나포스 기입고객 (3년 약정 기준, 택1)
로제스 인리인 (기방, 보호대 포함)	앰피오 MP4 (IGI)
USB HDD (2.5인치, 60G)	엘슨 복권기
신온 전용 청소기	서비스이미지 차량용 낭온전조
비디오 슬리더	비비리스 크리스탈 헤이케이드라이버
필립스 필리쉐이브 28드 면도기	한국희 스팀 청소기

www.hanaro.com으로 가입하시는 하나포스 신규 가입고객께는 **추가사은품**을 드립니다.

프리저버 세트 2 SET
육체보관형 11.4L 1SET(3P) + 도어포켓형 (450mm×650mm) 1SET(3P)

* 상기 사은품은 사정과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제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 1600-8000 www.hanaro.com hanafos